

女大生の 體型認識이 身體이미지와 滿足도에 미치는 影響

李貞順 · 韓敬姬*

祥明大學校 衣裳디자인專攻 教授, 水原女子大學 패션코디네이션科 教授*

The Effects of University Woman Students' Recognition on their image and satisfaction of their physical bodies

Lee, Jung-Soon · Han, Gyung-He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Coordination, Suwon Women's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University Woman Students' recognition of their physical bodies and the effects that their recognition has on their image and satisfaction of their physical bodies.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University Woman Students students' practical physical sizes and ideal sizes, it was showed that their heights and bust should be larger than their practical physical sizes but their waist, hip, and weight should be reduced. 2)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factors for the evaluation of University Woman Students students' behavioral body images, Factor I was 'Management of Appearance', factor II was 'Management of Weight' and Factor III was 'Satisfaction of Appearance'. Considering the result of correlation of factors of the body images, it was showed that the more interest they had on their appearances, the more management they had on their weights. 3) They had comparatively positive recognition on their physical bodies. However, regarding their degrees of the satisfactions on their physical parts, they showed somewhat dissatisfaction on all the items of their physical parts. 4)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ir recognition of the physical types and their satisfaction of them, it was showed that they had more satisfactions when their heights were higher and their weights were lighter. In addition, it was showed that they had more satisfaction when they had larger busts and regarding their waists, hips, upper arms, lower arms, wrists, thighs, and calf measurements, they had more satisfactions when they had thinner ones and regarding their shoulders' measurements, it was showed that they had more satisfactions when they had narrower shoulders' measurements.

Key Words : 체형인식(perception of somatotype), 신체이미지(body image), 신체만족도
(body satisfaction), 이상적 체형(ideal somatotype), 실제 체형(real somatotype)

1. 서론

경제적 발달에 의한 여유로운 생활과 여성 교육의 확대 및 사회진출 증대로 인하여 여성들의 미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현대 여성의 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복의 경우 의복이 잘 어울리지 않을 때 여성들은 의복자체에 대한 불만보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체형에 자신이 없을 때 의복을 통하여 체형의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강조하는 보다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복을 착장한다(조윤주, 이정란, 2004), 특히 여대생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자신의 체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신체만족 및 불만족은 그들의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여대생들은 마른형을 선호하며 체중 증가에 대한 과민반응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신체에 대한 인식은 사회, 문화,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 집단을 대상으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와 의 관계를 파악하여 여대생들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체형인식,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개성은 살리고, 체형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의복의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체형인식

Mable, Balance & Galgan(1986)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자신의 체중에 대한 왜곡정도는 1% 미만이나 여성의 경우, 자신의 체중에 대한 왜곡정도가 15% 정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우미(2000)는 여대생은 신체에 대한 실제치수와 이상적 치수에 대한 차이가 크며, 이에 따른 의복행동은 이상적인 신체를 향한 만족감 상승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

남윤자, 이승희(2001)의 연구에서 한국 여대생들은 미국 여대생보다 마른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인식에서 더 뚱뚱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더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숙(2002)은 체형의식에 따른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만족도는 각 부위의 실제치수보다는 인식도에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남윤자, 이승희(2001)은 신체만족은 실제체형과 인식체형 중 인식체형과 더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조윤주(2003)는 여대생의 체형 인식도와 만족도 차이 연구에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허리와 엉덩이, 넓다리, 장딴지는 굵고 다리길이와 키는 작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신체이미지

Fisher(1986)는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신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신적 견해이며, 자신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태도에 초점을 둔 심리적 경험으로서의 신체라고 정의하였다¹⁾

Rudd & Lennon(2001)은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정신적인 이미지로서, 신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인식적인 요소로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치수, 형태, 체중, 특징, 운동, 기능 등을 보는 방식을 말하며, 태도적인 요소로는 개인이 이런 특성들에 대하여 느끼는 것과 그 느낌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말한다고 하였다.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경험을 통하여 형성하게 되는 신체에 관한 정신적 표상으로서, 자신의 속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신체이미지는 신체에 대한 기능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신체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가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²⁾

송경자 & 김재숙(2005)는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실제 체형보다 인식된 체형이 더 중요하게 인지되며, 자신을 마른 체형으로 인지할수록 자아개념과 의복과시성이 높았고, 자신의 신체지각에서 왜곡이 적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만족도

Labat & Delong(1990)는 신체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 전체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한 만족, 불만족 정도라 정의하였으며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치수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평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체 만족도는 신체 치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이상형에 대한 기준도 이론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신체비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대적,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³⁾.

Secord & Jourard(1953)는 신체만족도는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가지는 만족도라 하였고 신체만족도는 정신건강의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Richard & Hawthome(1971)은 신체 각 부위에 대한 감정은 자아에 대한 감정과 일치하며 신체가 고통받거나 불안한 상황일 때 신체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추태귀(2002)는 여대생들의 신체만족도는 다소 낮아 불만족한 편이며, 특히 하체와 체중에 대하여 가장 불만족한 편이라고 하였다.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성적매력, 개성, 실용성을 더 추구하였으며,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주(2003)는 여대생의 체형 인식도와 만족도 차이 연구에서 목둘레를 제외하고는 전 부위에서 인식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만족도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

송경자 & 김재숙(2005)의 연구에 의하면 40대 여성은 20대 여성보다 자신을 더 날씬한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20대 여성이 40대 여성보다 신체만족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 자신의 신체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대상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임의표본추출법으로 추출된 139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총 150부를 배부하여 140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한 응답지 1개를 제외한 139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기간은 1, 2차 예비조사를 거쳐서 2007년 2월부터 3월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류관련 전공의 훈련받은 면접자가 여대생 3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여대생 139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체형인식 관련한 13문항과 신체이미지 관련한 13문항, 그리고 신체만족도 관련한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체형인식 및 신체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백희영 외 3인(2000)의 연구, 조윤주(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들을 종합하여 키, 몸무게,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레, 넓다리둘레, 장딴지둘레, 팔길이, 다리둘레, 어깨너비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PC(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Personal Comput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먼저 원천 데이터의 내용들이 도수분포상에서 어떠한 분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실제 치수와 이상적 치수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하였고, 신체부위에 따른 체형인식과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하였다. 여대생의 신체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신체이미지 요인에 따른 체형인식과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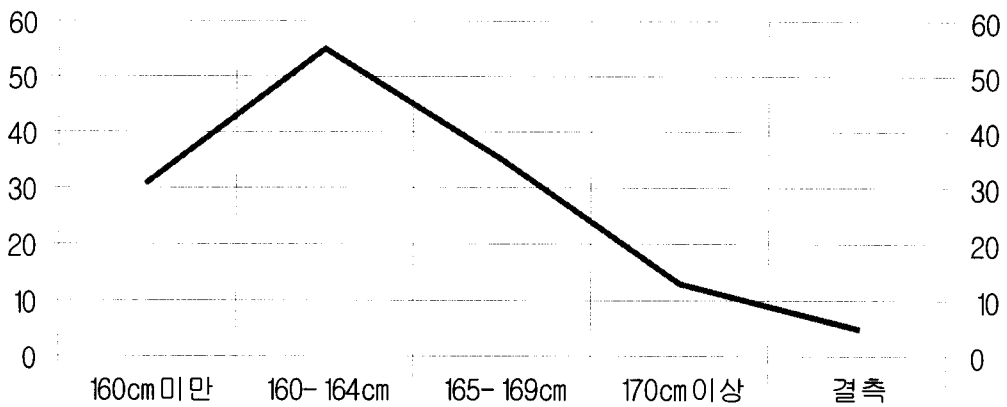
1. 신체부위에 따른 실제 치수와 이상적 치수

(그림1)과 (그림2)는 연구대상의 실제키와 체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연구대상의 실제키는 160-165cm인 여대생이 55명(39.6%)으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165-170cm인 여대생이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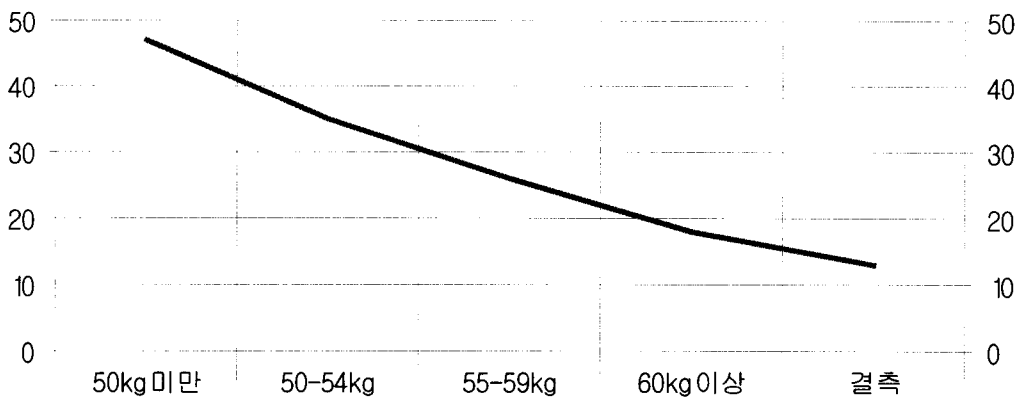
명(25.2%) 160cm 미만인 여대생이 31명(21.3%), 170cm 이상의 여대생이 13명(9.4%)로 나타났다(그림1). 체중은 50kg미만이 47명(33.8%)으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50-55kg 미만인 35명(25.2%), 55-60kg미만이 26명(18.7%), 60kg 이상이 13명(9.4%)으로 나타났다(그림2).

여대생의 실제 치수와 이상적 치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실제 평균 키는 162.97cm고 몸무게는 51.93kg인데 반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키는 167.74cm고 몸무게는 49.47kg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키는 4.77cm 더 커야하고, 몸무게는 2.46kg를 더 빼야 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

<그림 1> 여대생의 실제 체형(키)



<그림 2> 여대생의 실제 체형(몸무게)



타났다. 실제 젓가슴둘레 평균치는 84.41cm이고 이상적인 젓가슴둘레 평균치는 86.18cm로 나타나 1.77cm 더 커야한다고 인지하며, 실제 허리둘레 평균치는 68.90cm이고 이상적인 허리둘레 평균치는 62.58cm로 나타나 6.32cm 더 작아야한다고 인지하며, 실제 엉덩이둘레 평균치는 91.92cm이고 이상적인 엉덩이둘레 평균치는 88.94cm로 나타나 2.99cm 더 작아야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적인 체형이 되기 위해서는 키와 젓가슴둘레는 더 커야하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몸무게는 더 줄여야 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체형에 대한 인식과 신체이미지

1) 신체이미지의 요인분석

여대생의 신체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계수는 .62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요인의 수는 총분산을 61.55% 설명하는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와 각 요인별 요인 점수값이 가장 높은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표 2>에 제시하였다.

요인 I 은 '나는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분산의 25.20% 설명력을 나타냈고

<표 1> 실제 치수와 이상적 치수와의 차이검증

| | 실제치수 | | 이상치수 | | T-test |
|-------|--------|------|--------|------|----------|
| | 평균값 | 표준편차 | 평균값 | 표준편차 | |
| 키 | 162.97 | 4.81 | 167.74 | 3.28 | -9.37*** |
| 젓가슴둘레 | 84.41 | 5.78 | 86.18 | 4.21 | -2.65** |
| 허리둘레 | 68.90 | 6.08 | 62.58 | 8.58 | 6.27*** |
| 엉덩이둘레 | 91.92 | 6.61 | 88.94 | 5.70 | 3.32** |
| 몸무게 | 51.93 | 7.09 | 49.47 | 3.42 | 3.55*** |

<표 2> 신체이미지 요인분석

| 요인 및 문항내용 | | 평균 | 표준편차 | 요인 부하량 | 고유치 | Cronbach's α | 누적 분산 |
|-----------------|--|------|------|--------|------|--------------|-------|
| 요인 I 외모 관리 | 나는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 4.41 | .80 | .84 | 3.28 | .62 | 25.20 |
| | 내가 항상 멋지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 3.99 | .89 | .80 | | | |
| | 나는 항상 내 외모를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 3.96 | .82 | .78 | | | |
| | 나는 내 차림새가 적절하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 4.35 | .75 | .73 | | | |
| |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본다 | 3.69 | .95 | .62 | | | |
| | 나는 사람들이 나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없다 | 2.01 | .97 | .53 | | | |
| 요인 II 체중 관리 | 나는 체중을 줄이려고 다이어트 중이다 | 3.12 | 1.23 | .85 | 2.78 | .84 | 46.52 |
| | 나는 몸무게가 조금만 변해도 걱정한다 | 2.92 | 2.92 | .84 | | | |
| | 나는 빠른 시간 안에 체중을 줄이려고 매우 엄격한 식사 제한을 한 일이 있다 | 2.54 | 1.39 | .80 | | | |
| | 나는 언제나 살찐 것에 대해, 또는 살이 찌까봐 걱정이다 | 3.75 | 1.20 | .72 | | | |
| 요인 III 외모 만족 |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하다 | 2.82 | .87 | .81 | 1.95 | .70 | 61.55 |
| |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 2.75 | .80 | .76 | | | |
| | 나는 성적 매력이 있다 | 2.67 | .96 | .76 | | | |

'외모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II는 21.32%의 설명력을 지니며 '나는 체중을 줄이려고 다이어트 중이다'를 포함하여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체중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III은 15.03%의 설명력을 지니며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를 포함하여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외모만족'으로 명명하였다.

2) 신체이미지 요인에 따른 체형인식과 만족도의 차이 검증

신체이미지 요인과 체형인식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표 3> 외모관리는 엉덩이둘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체중관리는 팔길이와 다리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외모만족의 경우는 키, 팔길이, 다리길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외모관리를 하는 집단의 경우 자신의 엉덩이둘레가 크다고 인지할수록 외모관리를 하며, 체중관리를 하는 집단의 경우 팔길이, 다리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무겁거나 굵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만족을 하는 집단의 경우 자신의 키와 팔길이, 다리길이가 길수록 외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 요인에 따른 신체 부위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표 4> 모든 항목에서 외모관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젖가슴둘레, 다리길이, 어깨너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체중관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키, 젖가슴둘레, 아래팔둘레는 외모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체중관리를 하는 집단의 경우 키는 만족할수록, 몸무게와 모든 둘레항목에서 불만족할수록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와 젖가슴둘레에 만족할수록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 요인간의 상관분석<표 5> 결과 외모관리집단과 체중관리집단간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상관계수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체형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1) 체형인식과 만족도

여대생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하였다.

<표 3> 신체이미지 요인과 체형인식과의 상관관계

| 신체부위 | 체형인식 | 외모관리 | 체중관리 | 외모만족 |
|-------|-----------|-------|--------|-------|
| 키 | 작다 - 크다 | .01 | .24** | .17* |
| 몸무게 | 가볍다 - 무겁다 | -.01 | .38*** | -.02 |
| 젖가슴둘레 | 작다 - 크다 | -.93 | .29** | .09 |
| 허리둘레 | 가늘다 - 굵다 | .02 | .29** | -.05 |
| 엉덩이둘레 | 작다 - 크다 | -.19* | .22* | -.00 |
| 위팔둘레 | 가늘다 - 굵다 | -.03 | .30*** | .01 |
| 아래팔둘레 | 가늘다 - 굵다 | -.06 | .32*** | .09 |
| 손목둘레 | 가늘다 - 굵다 | -.02 | .26** | .10 |
| 넓다리둘레 | 가늘다 - 굵다 | -.08 | .22* | -.01 |
| 장딴지둘레 | 가늘다 - 굵다 | -.02 | .29** | -.04 |
| 팔길이 | 짧다 - 길다 | .01 | .05 | .27** |
| 다리길이 | 짧다 - 길다 | .04 | .08 | .17* |
| 어깨너비 | 좁다 - 넓다 | .06 | .25** | .16 |

*p<.05, **p<.01, ***p<.001

<표 4> 신체이미지 요인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 신체부위 | 만족도 | 외모관리 | 체중관리 | 외모만족 |
|-------|------------|------|---------|------|
| 키 | 불만족 --- 만족 | .10 | .21* | .20* |
| 몸무게 | 불만족 --- 만족 | .90 | -.30*** | .86 |
| 젓가슴둘레 | 불만족 --- 만족 | -.07 | .10 | .17* |
| 허리둘레 | 불만족 --- 만족 | .03 | -.34*** | .08 |
| 엉덩이둘레 | 불만족 --- 만족 | .03 | -.23** | -.00 |
| 위팔둘레 | 불만족 --- 만족 | -.00 | -.36*** | .14 |
| 아래팔둘레 | 불만족 --- 만족 | .01 | -.32*** | .16 |
| 손목둘레 | 불만족 --- 만족 | .03 | -.19* | .04 |
| 넓다리둘레 | 불만족 --- 만족 | .04 | -.21* | .08 |
| 장딴지둘레 | 불만족 --- 만족 | -.03 | -.22** | .05 |
| 팔길이 | 불만족 --- 만족 | -.01 | -.17* | .09 |
| 다리길이 | 불만족 --- 만족 | -.02 | -.03 | .10 |
| 어깨너비 | 불만족 --- 만족 | .05 | -.15 | .16 |

*p<.05, **p<.01, ***p<.001

<표 5> 신체이미지 요인간의 상관분석

| | 외모관리 | 체중관리 | 외모만족 |
|------|------|------|------|
| 외모관리 | 1 | .20* | .16 |
| 체중관리 | .20* | 1 | .13 |
| 외모만족 | .16 | .13 | 1 |

*p<.05

신체에 대한 각 부위별 항목은 ‘작다, 가볍다, 가늘다, 짧다, 좁다’에 5점척도 중 1점을 부여하고, ‘크다, 무겁다, 굵다, 길다, 넓다’에 5점척도 중 5점을 부여하였다. 만족도에 대한 항목은 아주 불만족하는 경우 5점척도 중 1점을 부여하고, 아주 만족하는 경우 5점척도 중 5점을 부여하였다.

자신의 체형 인식에 대한 5점척도 분석결과<표 6> 키는 평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몸무게는 무겁고, 어깨너비는 넓고, 엉덩이 둘레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팔둘레와 넓다리둘레, 장딴지둘레는 굵다고 인식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 인식과 만족도에 대한 5점척도 분석결과<표 6> 몸무게는 평균이상으로 인식하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크고, 젓가슴둘레는 작고, 어깨너비는 넓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손목둘레와

팔길이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거의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신체부위에 따른 체형인식과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의 체형 인식에 대한 점수보다 만족도가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하더라도 불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키와 다리길이는 평균에 가까우나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몸무게는 무겁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넓다리둘레, 그리고 장딴지둘레는 굵어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젓가슴둘레는 작은 것으로 인식하여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깨너비는 넓고, 팔길이는 길어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신체부위에 따른 체형인식과 만족도의 차이검증

| | 체형인식 | | 만족도 | | T-test |
|-------|------|------|------|------|----------|
| | 평균값 | 표준편차 | 평균값 | 표준편차 | |
| 키 | 2.95 | .98 | 2.63 | 1.21 | 2.39* |
| 몸무게 | 3.24 | .86 | 2.21 | 1.04 | 9.06*** |
| 젖가슴둘레 | 2.83 | .96 | 2.31 | 1.10 | 4.17*** |
| 허리둘레 | 3.09 | .90 | 2.44 | .97 | 5.82*** |
| 엉덩이둘레 | 3.51 | .97 | 2.04 | .95 | 12.65*** |
| 위팔둘레 | 3.28 | .94 | 2.32 | 1.02 | 8.09*** |
| 아래팔둘레 | 2.90 | .98 | 2.64 | 1.11 | 2.03* |
| 손목둘레 | 2.53 | 1.00 | 3.13 | 1.10 | -4.81*** |
| 넙다리둘레 | 3.64 | .93 | 1.94 | .97 | 14.92*** |
| 장딴지둘레 | 3.48 | .96 | 2.09 | 1.02 | 11.69*** |
| 팔길이 | 3.30 | .82 | 3.01 | 1.07 | 2.57* |
| 다리길이 | 3.01 | .88 | 2.50 | 1.11 | 4.27*** |
| 어깨너비 | 3.15 | .86 | 2.66 | 1.08 | 4.21*** |

*p<.05, **p<.01, ***p<.001

<표 7> 신체부위에 따른 체형인식과 만족도의 상관관계

| 체형인식 | 만족도 | 상관계수 |
|------------------------|------------|---------|
| 키가 작다 - 키가 크다 | 불만족 --- 만족 | .47*** |
| 몸무게가 가볍다 - 몸무게가 무겁다 | 불만족 --- 만족 | -.41*** |
| 젖가슴둘레가 작다 - 젖가슴둘레가 크다 | 불만족 --- 만족 | .33*** |
| 허리둘레가 가늘다 - 허리둘레가 굵다 | 불만족 --- 만족 | -.60*** |
| 엉덩이둘레가 작다 - 엉덩이둘레가 크다 | 불만족 --- 만족 | -.37*** |
| 위팔둘레가 가늘다 - 위팔둘레가 굵다 | 불만족 --- 만족 | -.65*** |
| 아래팔둘레가 가늘다 - 아래팔둘레가 굵다 | 불만족 --- 만족 | -.58*** |
| 손목둘레가 가늘다 - 손목둘레가 굵다 | 불만족 --- 만족 | -.58*** |
| 넙다리둘레가 가늘다 - 넙다리둘레가 굵다 | 불만족 --- 만족 | -.65*** |
| 장딴지둘레가 가늘다 - 장딴지둘레가 굵다 | 불만족 --- 만족 | -.65*** |
| 팔길이가 짧다 - 팔길이가 길다 | 불만족 --- 만족 | .45*** |
| 다리길이가 짧다 - 다리길이가 길다 | 불만족 --- 만족 | .52*** |
| 어깨너비가 좁다 - 어깨너비가 넓다 | 불만족 --- 만족 | -.40*** |

*p<.05, **p<.01, ***p<.001

2) 체형인식과 만족도의 상관관계

여대생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7>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부위 중 키, 젖가슴둘레, 팔길이, 다리길이를 제외하고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길이항목에서는 키, 팔길이, 다리길이 모두가 길수록 만족하며 둘레항목에서는 젖가슴둘레를 제외한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레, 넙다리둘레, 장딴지둘레는 가늘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키가 클수록, 몸무게는 가벼울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젖가슴둘레는 클수록, 그 외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레, 넙다리둘레, 장딴지둘레는 가늘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깨너비는 좁을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체형의 신체부위별 인식이 본인의 신체이미지와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대생의 실제 치수와 이상적 치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상적인 체형이 되기 위해서는 키와 젓가슴둘레는 더 커야하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몸무게는 더 줄여야 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Ⅰ은 '외모관리'로, 요인 Ⅱ는 '체중관리'로, 그리고 요인 Ⅲ은 '외모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신체이미지 요인과 체형인식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자신의 엉덩이둘레가 크다고 인지할수록 외모관리를 하며, 팔길이, 다리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무겁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체중관리를 하며 자신의 키와 팔길이, 다리길이가 길수록 외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 요인에 따른 신체 부위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키는 만족할수록, 몸무게와 모든 둘레항목에서 불만족할수록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와 젓가슴둘레에 만족할수록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 요인간의 상관분석 결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키는 평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몸무게는 무겁고, 어깨너비는 넓고, 엉덩이 둘레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팔둘레와 넓다리둘레, 장딴지둘레는 굵다고 인식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손목둘레와 팔길이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거의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하더라도 불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여대생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키가 클수록, 몸무게는 가벼울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젓가슴둘레는 클수록, 그 외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레, 넓다리둘레, 장딴지둘레는 가늘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깨너비는 좁을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여대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체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류산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의 신체부위별 이상적인 치수와 실제치수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신체 매력을 만족시키고, 체형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2001), "다차원적 신체 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pp.358-365
- 2) 김완석, 김해진(2005), "여성의 신체이미지 지각이 신체관련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 6(3), pp.27-40
- 3) 남윤자, 이승희(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pp.736-747
- 4) 박재경, 남윤자, 최경미(2004), "한국과 일본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및 신체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8(6), pp.758-766
- 5) 박우미(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pp.736-747
- 6) 백희영, 남윤자, 박재경, 김주연(2000), "신체에 대한 인식과 계측자료에 의한 여대생들의 체형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pp.59-70
- 7) 송경자, 김재숙(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요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다중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 pp.391-402

- 8) 서화숙, 송정아(2004), "여대생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6(3), pp.329-335
- 9) 전경숙(2002), "체형의식에 따른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 시내 여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52(3), pp.75-85.
- 10) 정옥임(1993),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체형과 실제체형과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1(1), pp.153-162
- 11) 조운주(2003), "여대생의 체형 인식도와 만족도 차이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pp.73-80
- 12) 조운주, 이정란(2004),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2), pp.262-269
- 13) 추태귀(2002), "신체만족도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추구효용",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4), pp.376-382
- 14) 황진숙, 김윤희(2006),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복식 56(3), pp.143-155
- 15) 홍금희(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pp.48-54
- 16) Mable.H.M,Balancl.W., Galgan(1986), "Body image distortion and dis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 pp.907-911.
- 17) Richard E.A., Hawthome R.E.(1971)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i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3), pp.190-194
- 18) Rudd N.A., Lennon S.J.(2001), "Body image : linking aesthetics and social psychology of appearance", *C.T.R.J.*, 19(3), pp.120-133
- 19) Secord P.F., Jourard S.M.(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5), pp.343-347

(2007년 4월 9일 접수, 2007년 6월 11일 채택)